

지역 매아리

부안군, 저소득층 청년

희망통장사업 참가자 모집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과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청년 희망통장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해 30명을 선별할 예정이며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적립금의 100%를 지원한다. 특히 약정한 적립기간 중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더라도 적립금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적립기간 종료 후 교육·훈련, 주거, 의료, 결혼, 창업, 대출금상환 목적으로 사용시 부안군 적립금이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7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063-580-431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생 현장실습

정읍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역인재 발굴을 위해 지역 내 초등 교육기관과 사회복지 기관 등에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감 습득으로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에 재취업 연결을 지원한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습 중인 SW융합 교육 전문가 과정은 퍼지컬 코딩과 드론, 3D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코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통해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현장 교육 관계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평이다. 시니어드림 전문가 과정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급증하면서 사회복지 실무에 능숙한 전문 인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현장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실무중심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와 여성들의 가사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28일 수료식을 갖고 구인 업체가 직접 현장에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미니취업박람회도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 능력과 취업 자신감 향상을 위한 현장 실습 훈련을 통해 정읍시에 거주하는 여성 누구나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인돌유적 실태조사 추진

고창군, 맞춤형 보존정비 위해 9월까지 진행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고인돌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가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특히 용역에는 그간 천제단으로 알려진 도산리 고인돌의 교육적 보존활용을 위한 방안도 포함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고인돌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총사업비 7000만원)가 9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당수의 고인돌

이 경사면에 위치해 집중호우, 태풍 등에 따른 붕괴 우려가 커 종합적인 보존정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유적지 내 고인돌의 종합적 안전진단과 보강 작업이 이뤄진다. 또 고인돌 표주석 설치와 잡목 및 작충물 제거로 좀 더 가까워서 고인돌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이와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 공간 재현, 주변 관광자원인 봉덕리 고분군, 서산산성, 용계리 청자요지, 운곡습지와의 연계 등 관광상품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천제단 고인돌(도산리 고인돌)의 보존·활용을 위한 발전방향도 마련된다. 천제단이 바라보는 두 반침돌 사이의 각은 약 102°로 일년 중 9월 말에서 10월 초의 일출 시간인 아침 8시 전후에 해당한다. 고창군과 학계는 이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부터 마한의 모로비리국까지 천제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고창의 자랑인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제16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지난 23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온 가족이 즐기는 여름 대표축제로 '우뚝'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16만명 방문

복분자와 수박 농산물 판매 7억5000만원... 전년 대비 7% ↑

고창 대표 농산물인 복분자와 수박을 테마로 열린 제16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지난 21~23일(3일간) 군민과 관광객 등 총 16만 여명(전년 대비 5%증가)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는 여는 마당부터 특별했다. 고창 복분자와 수박을 소재로 한 기획마당극을 농악보존회에서 선보여 관광객에게 재미와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농산물 축제에 맞춰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름철 건강을 책임지는 복분자와 수박을 시중가보

다 30%저렴하게 판매했다. 행사기간 총 판매액은 7억5000만원(전년대비 7%증가)을 기록했다. 여기에 수박을 주차장까지 배달해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배달 카트를 운영해 구매했던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았다. 수박을 활용해 아름다운 조각의 경치를 보여준 제2회 전국수박가위 대회는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더위도 잊게 만드는 복분자와 수박캐릭터와의 시원한 물총싸움, 수박벨리 먹기 대회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시골박적인 흥겨운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고창=김영식기자

축제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캐릭터 연기자도 간에는 달콤한 복분자 사탕과 썰리는 더위에 지친 방문객들을 미소 짓게 했고, 아이들을 위한 환상의 비누방울·요술풍선쇼는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준비위원회 이문식 축제위원장은 "고창을 대표하는 복분자와 수박을 가지고 오감 만족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고창 농산물을 구입하신 관광객에게 감사드리며 더 발전된 농산물 특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서간 벽 허물고 목표 달성에 최선을”

권익현 부안군수, 주요간부회의서 부서간 협업 강화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부서간 벽을 허물자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24일 열린 주요간부 회의에서 “어느덧 민선 7기도 1년을 맞고 있다. 1년 동안 많은 성과도 아쉬움도 있었다”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최근 전 국민을 뜨겁게 열광하게 했던 U-20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며 “이는 감독과 코치, 선수들이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권익현 군수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부안군 공직자 역시 원일정신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부서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한양대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영어캠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여름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한 현장행정을 강화해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언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방지 ‘총력’

정읍시, 취약지 23개소 추가 지정

정읍시가 최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산사태와 사방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 2개소를 심의해 23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또 지난 2013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사방사업이 완료된 6개소를 해제했다. 신규로 지정된 곳은 산내면과 신외면, 철보면 등 지난해 산사태 위험지로 조사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큰비로 인해 산계곡부의 토석과 나무 등이 밀려 내려와 있는 곳이다. 해제된 곳은 신월동과 입암면 등 사방사업이 완료된 지 5년이 지나 지정 목적

이 달성된 지역이다. 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반에 신규 지정된 곳을 포함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총 17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근 민가의 안전을 위해 비상 연리판과 대피소 등 대피 체계를 구축하여 특별 관리된다. 위험등급에 따라 사방벽과 계류보전 사업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이 우선 시행되고 지정 목적이 달성되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방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명인명창 등용문 고창 모양 전국 국악경연대회 성료

국악 명인·명창의 등용문인 '제10회 고창모양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지난 22일 고창동리국악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유능한 국악예술인 발굴을 통해 영예로운 등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국악의 저변 확대와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10년째 고창시에서 열린다. 유가수 고창군수, 김영호 고창군부시장, 서양수 한국예술원 구진홍원 이사장, 최종호 한국예술원 구진홍원 고창군지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회는 일반부, 단체부로 나눠 판소리, 무용, 민요, 고법·기악·타악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국악인들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열린 경연을 벌였다. 대회결과 ▲종합대상 김재욱(광주광역시) ▲판소리부 박인순(대전광역시) ▲무용부 이경자(전주시) ▲민요



부 조정숙(전주시) ▲고법·기악·타악부 라지원(전주시)씨가 각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예술원구진홍원 서양수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재능있고 훌륭한 국악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전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행사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들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광여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